



국제 농업 정보(2021. 10.): 글로벌



글로벌 농업·농촌·식품 동향

1 OECD-FAO 농업전망 2021-2030¹⁾

- **[개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향후 10년간의 중기 농업 전망 보고서를 매년 발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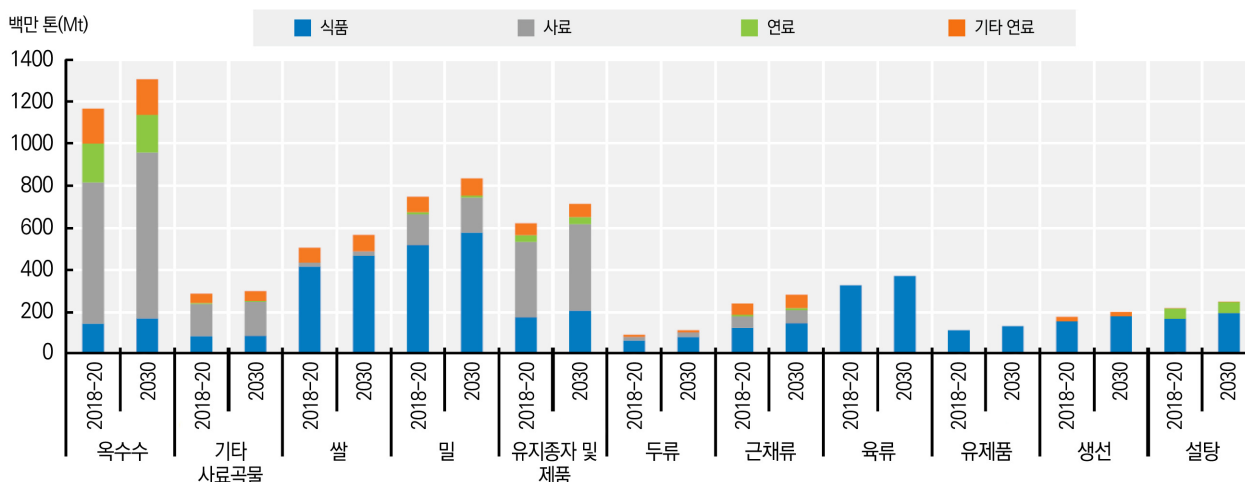
2021-2030 전망

< 소비 >

- **[총괄]** 농수산물 소비 구조는 향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적인 수요는 연평균 1.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둔화세는 주로 중국 및 신흥경제국 등의 수요 감소와 바이오연료의 소비 축소에 기인함.

- 인구, 소득, 가격, 사회·문화, 라이프스타일, 여성의 노동 활동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 중에서 인구 증가가 가장 핵심적인 수요 증가의 원인임.

| 주요 농산물의 국제 수요 |



1)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FAO 농업전망 2021-2030"(2020.9.13.)(출처: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1-2030', 2020.7.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2021. 10.): 글로벌

■ **[식품]** 세계 인구 및 1인당 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식품 소비는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이다.

- 소득·식습관의 변화·건강과 환경에 관한 관심 제고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식품 가용성(Food availability)은 연평균 4% 증가하여 2030년 3,025Kcal/인/일을 달성하고, 이 중 지방과 탄수화물이 추가 증가량의 58%를 차지할 전망이다.

식량안보의 3가지 기본 요소: 식품의 가용성, 접근성, 이용성

(가용성)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로 식량 생산과 공급력에 의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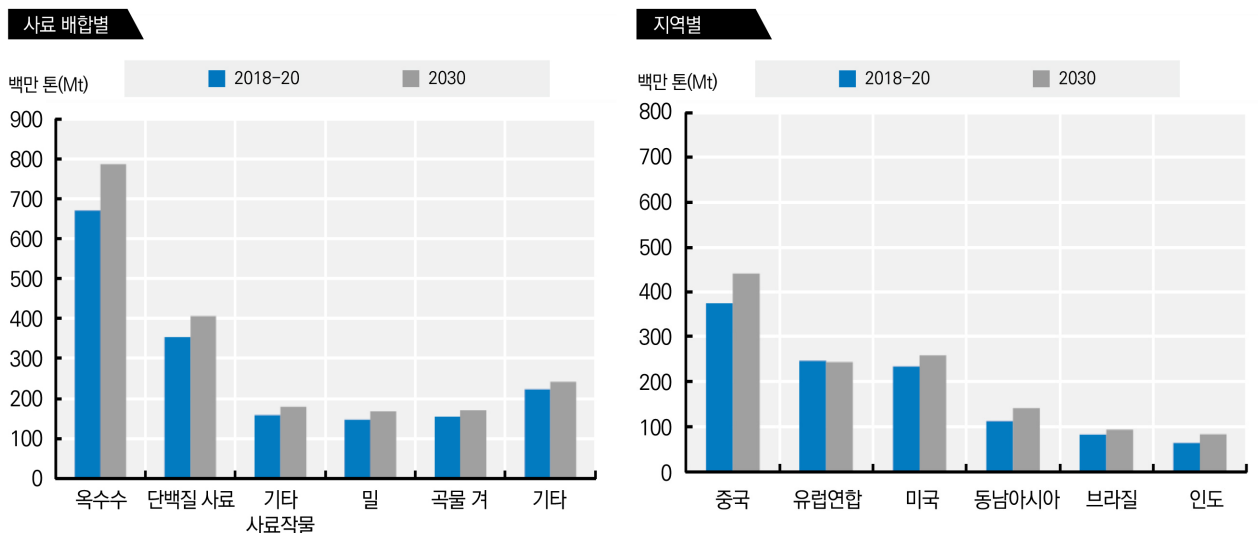
(접근성) 먹을 것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식품 구매력과 가격에 의해 결정

(이용성) 먹을 것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의 문제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여부, 식수 위생 등 환경조건, 영양 지식 등에 의한 올바른 섭취 등에 의해 결정

■ **[사료]** 육류 소비 확대로 농작물의 사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료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14% 증가하여 20억 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중·저소득 국가의 집약적 축산업 확대로 사료 소비 수요의 증가 추세를 견인하고, 주요 사료 소비 국가(중국, 미국, EU 등)가 2030년까지 전체 소비량의 1/2를 차지함.

| 사료 배합·지역별 사료 수요 |



■ **[바이오연료]** 지난 10년간 연평균 4%보다 크게 낮아져 향후 10년간 연평균 0.5%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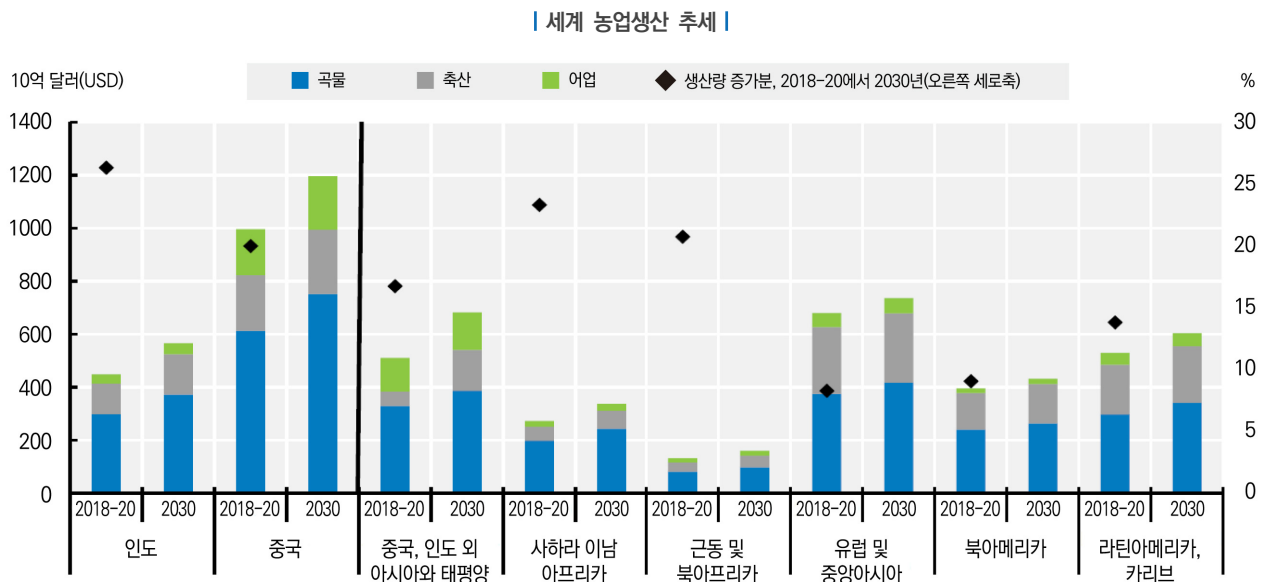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2021. 10.): 글로벌

- 대부분의 바이오연료의 수요 증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발생하며, 미국, EU, 중국 등 그린 테크놀로지(전기차 등)가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에서는 바이오연료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수요 증가가 제한됨.

〈생산〉

■ **[총괄]** 신흥경제국과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증산은 신흥경제국과 저소득 국가에서 기반시설 및 R&D 투자 강화, 투입재 효율성 제고, 관리 능력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현되고, 생산성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환경 규제가 강한 북미, 서유럽 등에서는 생산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농작물]** 향후 10년간 총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30%)과 인도(16%)의 생산 증가에 따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61%)의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2030년까지 농작물 생산 증가 중 87%는 단수 증대²⁾, 7%는 경작집약도 증대, 6%는 토지 이용 확대가 기여할 것임.

■ **[축산]** 세계 육류 생산량은 사육 두수 증가와 생산성 증가로 향후 10년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4,400만 톤)

2) 단수 증대는 종자 개량, 용수 관리, 비료·농약 등 투입재의 최적 사용, 재배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인을 말함.



국제 농업 정보(2021. 10.):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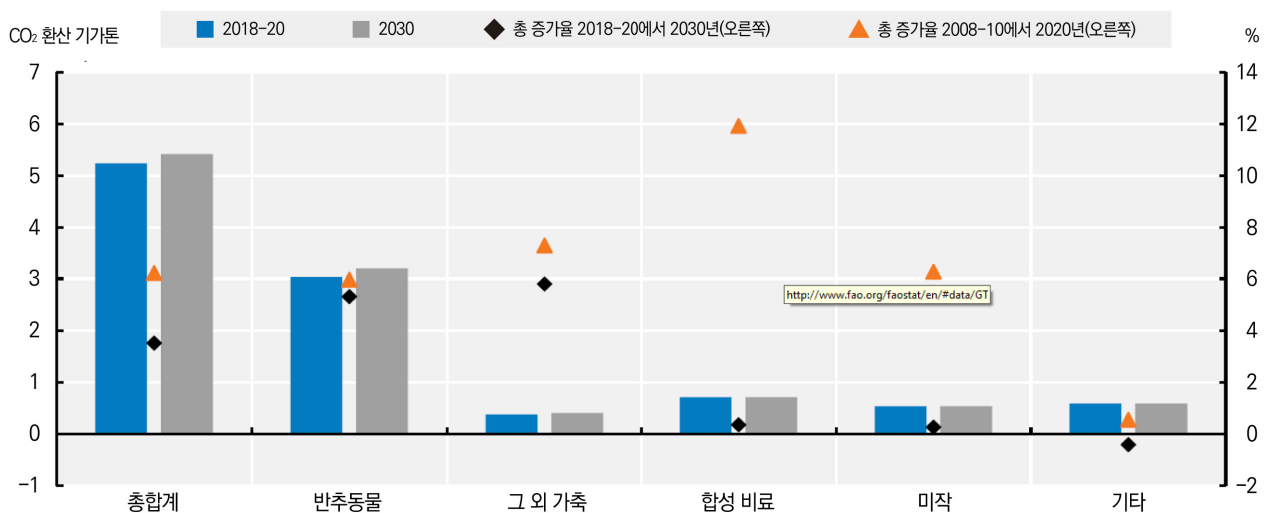
- 가금류 생산이 축산물 전체 생산의 52%를 차지하고, 낙농업은 우유 생산 시스템 최적화, 가축 건강 관리 기술 향상, 유전자 개량, 사료 효율 제고, 규모 확대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22%의 성장을 하며 축산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수산]** 어업생산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1.2% 증가하여 2억 1,000만 톤에 도달하나, 지난 10년 성장률 2.1% 보다 낮은 수준임.

■ **[농업과 온실가스]**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12%가 농업 부문에서 직접 배출되며, 간접 배출까지 고려하면 21%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농업부문의 직접 GHG 배출은 총 4% 증가하며, 이 중 축산업이 80%를 차지할 전망임. 또한 농업 생산 증가가 GHG 배출 증가보다 빨라 농업부문의 탄소집약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농업생산과 GHG 배출 연평균 증가율 비교



〈무역〉

■ **[총괄]** 농수산물 총 무역 규모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향후 10년간 연평균 1.3%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성장세 둔화는 중국과 신흥경제국의 수요 감소와 바이오연료 시장의 침체 등이 주요 요인이며, 농식품 순수출 지역(북·라틴 아메리카 등)과 순수입 지역(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등)이 구분되는 경향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평균적으로 총 칼로리의 20% 정도가 수입농산물에 의해 구성되는 등 농산물 무역은 식량 안보와 영양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국제 농업 정보(2021. 10.):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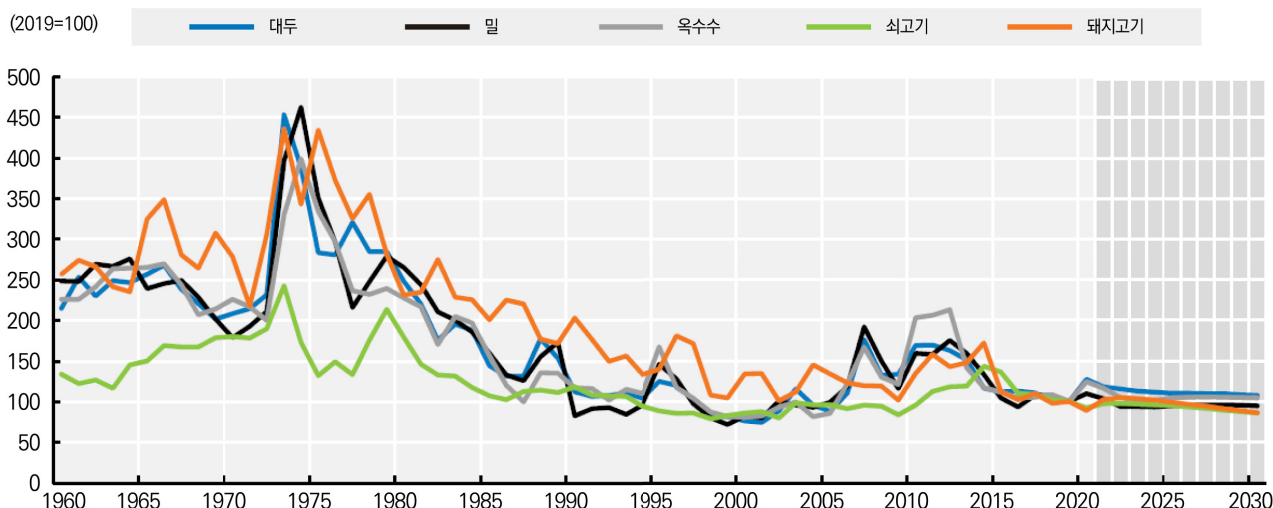
- 관세(평균 15% 수준), 소득지지·투입재 보조 등 시장 왜곡적 지원, 환경 및 기후 관련 정책 변화 등이 향후 10년간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임.

〈가격〉

■ **[총괄]** 생산성 향상으로 대부분 품목들의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1960년대부터 생산성 향상 및 한계 생산비 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실질가격이 하락 중임.
- 가격하락 요인이 인구와 소득의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와 자원제약과 같은 가격 상승 요인을 상회함.

농산물의 실질 가격 장기 추세



■ **[품목]** 곡물의 경우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전망 기간 동안 가격하락 압력이 가중되며, 육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공급 충격이 회복되고, 소득 증가 둔화, 고령화, 고소득층의 1인당 육류 소비 감소로 실질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낙농품 가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설탕은 큰 변화가 없고, 수산물도 하락, 바이오연료는 장기적 하락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불확실성 증가]** 농작물은 축산물보다 기후 영향에 더 민감하여서 농작물의 가격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낙농품은 주요 생산국인 뉴질랜드가 목초지를 기반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바이오연료 가격은 보완재인 원유가격과 크게 연동되어 결정됨.



국제 농업 정보(2021. 10.): 글로벌

〈정책적 시사점〉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시한인 2030년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세계 식량안보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30년 8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인구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부양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 핵심임.
 - 기후에 민감한 농수산업이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산업시스템을 전환·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임.
 - 기아·빈곤 문제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무역의 순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함.
-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인구 통계 및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참고: 주요 품목별 전망〉

- **[곡물]**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병목 현상, 중국의 사료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 높은 가격 수준을 형성 중이나 향후 1~2년 동안 하락하여 과거 수준을 회복하며 이후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사료 수요 둔화, 바이오연료 곡물 수요 정체, 1인당 곡물소비량 정체 등으로 이전에 비해 수요의 성장세가 둔화됨.
 - 향후 10년간 세계 연평균 단위 증가율은 약 1%로 예상되며, 세계 곡물 교역량은 생산량의 18%에 이르며, 밀 수출은 러시아, 옥수수 수출은 미국, 쌀 수출은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육류]** 명목 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및 소득 감소로 가격 저점에 도달하고 중기적으로 점차 반등하나 실질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 세계 육류 생산은 2030년까지 3억 7,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제품의 일관성 및 적응성, 높은 단백질/지방함량으로 인해 가금류 소비에 집중될 것임.
 - 가축질병, 위생규제, 무역정책, 육류 소비의 건강·환경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이 향후 육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상됨.
- **[낙농품]** 세계 유제품 생산은 연평균 1.7%씩 증가하고, 개도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신선 유제품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 농업 정보(2021. 10.): 글로벌

- 유제품 생산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증가(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하고, 북미·유럽 지역은 치즈, 아시아는 버터가 지속적으로 최다 소비될 것으로 예측됨.
- 건강 이슈 및 채식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한 유제품 대체 시장(두유, 아몬드유, 코코넛 유)의 확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수산물]** 세계 수산물의 생산은 연평균 1.2% 증가하여 2억 1,0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양식은 1억 3,000만 톤, 어획은 97만 톤)됨.

- 수산물 소비의 구성은 식용 90%, 비식용 10%이며, 식용으로 아시아가 전체의 72%를 소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1.2kg에 도달(기준년도 대비 0.7kg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9.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